

2016. 12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종

2016년 동향 및 2017년 전망 조사

【 요 약 】

□ 2016년 매출액은 15조 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생산 및 투자 위축, 개성공단 폐쇄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며 지역 업계 매출 감소
 - 내수는 국내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 철강 업종의 업황 침체가 심화되어 관련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또한, 김영란법 시행, 가계 부채 급증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산업 전반의 실적 악화
 - 수출은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 위축, 교역량 둔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심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실적 부진
-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1.3%) 업종은 매출 증가를 보인 반면, 조선기자재(-8.7%), 철강(-7.1%), 섬유(-5.2%), 전자·전기(-3.9%), 화학(-3.5%), 신발(-2.0%) 업종은 매출 감소

□ 2017년 매출액은 14조 6,802억원으로 2016년 대비 2.6% 감소 전망

- 세계경기 둔화 속에 중국 및 신흥국의 수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투자 위축, 소비심리 악화, 국가 간 과당 경쟁 속에 주력업종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의 부진 장기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7%) 업종에서 매출 증가를 전망한 반면, 조선기자재(-13.4%), 철강(-5.5%) 업종은 매출 감소 전망, 화학(-0.7%), 섬유(0.7%), 자동차부품(0.1%), 신발(0.0%) 업종은 매출 보합 전망

□ 기타경영 관련 사항

- 2016년 계획대비 매출실적 : 목표 미달(80.0%), 계획 달성(16.7%), 계획 초과(3.3%)
- 기업경영 애로사항 : 경기불확실성 증가(37.1%), 매출감소(28.5%), 저가수주(18.7) 순
- 고용동향 및 전망(전년말 대비) : 2016년 고용동향 1.2% 감소, 2017년 고용전망 0.4% 감소
- 자금사정 동향 및 전망(전년 대비) : 2016년 호전 3.3%, 보합 74.6%, 악화 22.0%

목 차

I. 조사 개요	2
II. 조사 결과 요약	3
III. 주요 업종 동향 및 전망	14
1. 섬유·신발	14
2. 화 학	18
3. 철 강	21
4. 전자·전기	24
5. 자동차부품	27
6. 조선기자재	30
IV. 기타 경영관련 사항	34
1. 2016년 계획대비 매출달성 정도	34
2.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35
3. 고용동향 및 전망	36
4. 자금사정 동향 및 전망	37
5. 무역환경 변화 전망	38

I. 조사개요

1. 조사명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종 2016년 동향 및 2017년 전망 조사」

2. 조사 목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업종별 경영동향 및 전망, 애로사항 등 파악
- 업계동향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자료로 활용

3. 조사 기간 : 2016. 11. 21 ~ 12. 23

- 조사표 발송 및 회수 : 2016. 11. 21 ~ 12. 12
- 조사표 집계내용 확인 : 2016. 12. 12 ~ 12. 14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6. 12. 15 ~ 12. 23

4. 조사 범위 및 대상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을 대표하는 6개 제조업체 업종별 [(섬유, 신발, 화학,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각각의 매출액 순위 50위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유효 응답업체는 209개체임
(※섬유·신발업종은 합계 통계에서 섬유와 신발로 구분하여 별도 집계함)

5. 조사 방법

-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해당업체 방문과 전화조사를 병행

6. 조사 내용

- 2016년 매출실적 및 2017년 전망(총매출, 내수, 수출 등)
- 2016년 계획대비 매출달성 정도
-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 2016년 고용 동향 및 2017년 전망, 자금사정 동향 및 전망
- 무역환경 변화 전망

7. 주의사항

- 기업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신용평가사 정보 기준을 참고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II. 조사결과 요약

1. 2016년 매출동향

□ 201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

- 부산지역의 주요 6개 제조업종 209개체의 2016년 매출액은 15조 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생산 및 투자 위축, 개성공단 폐쇄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며 지역 업계 매출 감소
 - 내수는 국내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 철강 업종의 업황 침체가 심화되며 관련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또한, 김영란법 시행, 가계 부채 급증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 산업 전반의 실적 악화
 - 수출은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 위축, 교역량 둔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심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실적 부진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종 2016년 매출 동향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증감률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계	157,464	96,892	60,572	150,670	92,293	58,377	-4.3	-4.7	-3.6

주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209개체 실적

□ 2016년 주요 업종별 매출동향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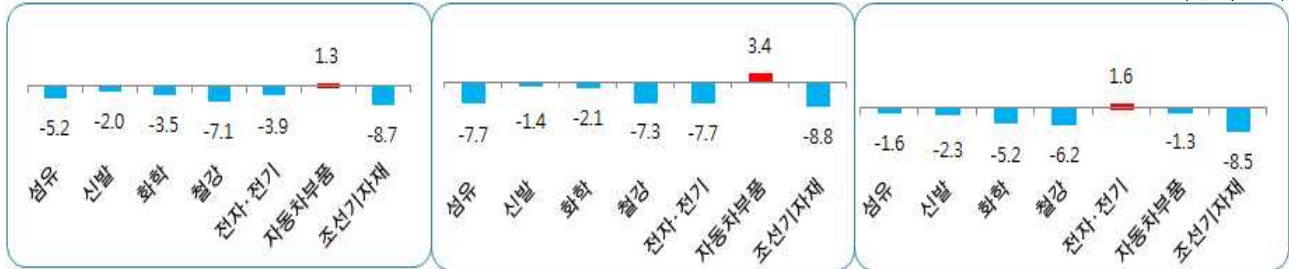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자동차부품(1.3%) 업종은 매출 증가를 보인 반면, 조선기자재(-8.7%), 철강(-7.1%), 섬유(-5.2%), 전자·전기(-3.9%), 화학(-3.5%), 신발(-2.0%) 업종은 매출 감소

【 2016년 총매출 】

【 2016년 내수 】

【 2016년 수출 】

(단위: %)



○ 매출 증가 업종

- **자동차부품 업종**은 완성차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신차 출시 확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인한 정책효과로 부품 공급이 증가하며 매출 확대

○ 매출 감소 업종

- **조선기자재 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세계 선박 발주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선사 경영위기로 자국 발주가 위축,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 수주잔량이 크게 감소하며 실적 악화
- **철강 업종**은 국내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시장 잠식 심화,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 확대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매출 하락
- **석유 업종**은 각종 프로모션에서의 지역 업체 실적 부진과 소비 심리 악화에 따른 연말 특수 위축,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석유 소비 감소와 중국 내 현지조달 확대 등으로 매출 하락
- **전자·전기 업종**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가전제품 교체수요 감소, 전방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선박용 배전반, 통신장비 등의 공급 부진 등으로 매출 하락
- **화학 업종**은 주요 수요산업의 업황 부진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화학제품 소비 감소, 신흥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납품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 부진
- **신발 업종**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공장 철수로 인한 생산 중단 사태, 원부자재 납품 규모 감소 및 지역 업체 브랜드 마케팅 부족 등으로 매출 부진

【 2016년 업종별 매출 증감요인 】

(단위 : %)

구 분			증감률	증 감 요 인
섬유 , 신발	섬유	계	-5.2	각종 프로모션에서의 지역 업체 실적 부진과 중국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섬유 소비 감소, 중국 내 생산 설비 확대에 따른 현지 조달 확대에 따른 매출 감소
		내수	-7.7	해외 생산 의류의 역수입 확대, 해외 SPA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 해외 직구 및 병행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시장 잠식으로 내수 감소
		수출	-1.6	중국내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현지 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감소
	신발	계	-2.0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공장 철수로 인한 생산 중단 사태, 원부자재 납품 규모 감소 및 지역 업체 브랜드 마케팅 부족 등으로 매출 부진
		내수	-1.4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조업 차질 및 소비 위축과 더불어 지역 내 생산품 인지도 미흡 등으로 내수 부진
		수출	-2.3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OEM 주문 지속에도 불구하고, 신발 원부자재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화 학	화 학	계	-3.5	수요산업의 업황 부진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화학제품 소비 감소, 신흥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납품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 감소
		내수	-2.1	조선·해양플랜트 등 수요산업 수주절벽으로 인한 선박용 도료, 산업용 고무제품 등의 수요 위축 및 납품단가 하락 등으로 내수 부진
		수출	-5.2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신흥국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 감소
철 강	철 강	계	-7.1	국내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시장 잠식 심화,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 확대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매출 하락
		내수	-7.3	조선, 기계 등 연관산업의 경기 침체로 수요 부진 및 단가 인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엔저에 힘입은 일본산 철강재 국내 시장 침투 확대 등으로 경쟁이 과열되며 실적 악화
		수출	-6.2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위축 및 공급과잉 지속, 주요국의 각종 수입 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실적 부진
전 자 · 전 기	전 자 · 전 기	계	-3.9	IT전자부품, 고효율전력기자재 등 고부가가치제품군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였지만,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일부 기업은 사업장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
		내수	-7.7	선박용 배전반, 변압기, 통신장비 등의 전자·전기제품은 수주 감소, 납품단가 하락으로 부진하였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가전제품 교체수요 감소로 회로기관 등의 전자부품군도 부진세가 지속되어 실적이 감소
		수출	1.6	신규 고객사 유치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견고한 협력체계 지속 등으로 IT전자 부품과 브랜드 경쟁력 및 유통채널 다각화로 정밀계측기기 제품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어 소폭 증가
자 동 차 부 품	자 동 차 부 품	계	1.3	완성차업체의 과업에 따른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신차 출시 확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인한 정책효과로 부품 공급이 증가하며 매출 확대
		내수	3.4	완성차업체의 과업 및 태풍으로 인한 조업 차질, 기존 주력모델 노후화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업체의 신차출시효과, 위탁생산차량 증가 등에 따른 부급 공급 증가로 매출 개선
		수출	-1.3	러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 경기침체 영향, 완성차업체의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공장에서의 부품 현지조달 증대, 글로벌 완성차업체로부터의 수주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소폭 감소
조 선 기 자 재	조 선 기 자 재	계	-8.7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세계 선박 발주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선사경영위기로 자국 발주가 위축되며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 수주잔량이 크게 감소하며 매출 부진
		내수	-8.8	조선업 수주 절벽에 따라 납품물량 및 수주잔량이 점차 감소하며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원청업체 단가 인하 압력 심화,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축소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실적 악화
		수출	-8.5	대 중국 수출은 가격경쟁력 열위 및 기자재 현지화율 상승, 대 일본 수출은 일본 조선소의 수주물량 감소 및 각종 클레임 증가로 적자수주가 만연하며 수출 부진

2. 2017년 매출전망

□ 2017년 매출액은 2016년 대비 2.6% 감소 전망

- 부산지역의 주요 6개 제조업종 209개체의 2017년 매출액은 14조 6,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 전망
- 2017년 경제 전망은 세계경기 둔화 속에 중국 및 신흥국의 수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투자 위축, 소비심리 악화, 국가 간 과당 경쟁 속에 주력업종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의 부진 장기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내수는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투자 및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 주력업종인 조선, 철강 등의 업종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의 부진이 전망
- 수출은 글로벌 경제 둔화 속에 특히, 중국 및 신흥국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급과잉에 따른 국가 간 과당경쟁,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수출 부진 지속 전망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종 2017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실적			2017년 전망			증감률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계	150,670	92,293	58,377	146,802	89,318	57,484	-2.6	-3.2	-1.5

주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209개체 실적 및 전망

□ 2017년 주요 업종별 매출전망을 살펴보면,

- 전자·전기(3.7%) 업종에서 매출 증가를 전망한 반면, 조선기자재(-13.4%), 철강(-5.5%) 업종은 매출 감소 전망, 화학(-0.7%), 섬유(0.7%), 자동차부품(0.1%), 신발(0.0%) 업종은 매출 보합 전망

【 2017년 총매출 전망 】

【 2017년 내수 전망 】

【 2017년 수출 전망 】

(단위: %)



○ 매출 증가 전망 업종

- 전자·전기 업종은 조선업계 수주절벽에 따른 선박용 전자·전기제품군의 매출 부진 예상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 및 납품처 다변화를 통한 신규 수주 확보, 품질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고효율,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 확대로 매출 증가 전망

○ 매출 감소 전망 업종

- 조선기자재 업종은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 현상에 따라 기자재 업체의 수주잔량이 상당 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수주 부진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 및 자금사정 악화 지속에 따른 각종 투자 위축 전망.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 환경 악화로 실적 감소 전망
- 철강 업종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요 업종의 경기 침체 심화, 조업부진에 따른 설비 조정이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지속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로 매출 부진 전망

○ 매출 보합 전망 업종(매출 전망 $\pm 1\%$)

- 섬유 업종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소비 감소 및 현지화율 상승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류 완제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확대 노력과 국내 섬유 소재 납품 확대로 매출 보합 전망
- 자동차부품 업종은 완성차 업체의 각종 신차출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 및 국내외 완성차간의 경쟁 심화, 구매지원정책 종료 등으로 지역 부품업체의 매출 보합 전망
- 화학 업종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 단가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플랜트 등 수요산업의 불황 지속, 신흥국의 설비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라 매출 보합 전망
- 신발 업종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OEM 및 ODM 주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지속으로 전체 매출 보합 전망

【 2017년 업종별 매출 전망 증감 요인 】

(단위 : %)

구 분			증감률	증 감 요 인
섬유 , 신발	섬 유	계	0.7	섬유 소재 분야의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의류 완제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확대 노력에 따른 국내 섬유 소재 납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내수	1.4	지역 주요 의류 판매업체들의 판촉 확대와 섬유 소재 분야 납품 증가, 기능성 섬유 소재 개발 노력으로 내수 실적 개선 전망
		수출	-0.2	중국의 섬유소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 되는 가운데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조달 비중 확대, 동남아 시장의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에 따라 일부 수출 부진 전망
	신 발	계	0.0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OEM 및 ODM 주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 회복이 불투명해 전체 매출 정체 전망
		내수	0.3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지속에도 드라이빙 슈즈, 안전화 등 특수화 제조업체들의 연구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노력으로 내수는 소폭 증가 전망
		수출	-0.1	신발 부장품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며 중국산 저가 신발 원부자재와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해외 스포츠 브랜드의 ODM 물량 유지에 따라 수출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화 학		계	-0.7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 단가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플랜트 등 수요산업의 불황 지속으로 도료 및 안료, 고무제품 등에서 부진 지속
		내수	-0.7	납품단가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수요 산업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 예상
		수출	-0.7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수요 감소, 신흥국의 설비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 정체 전망
철 강		계	-5.5	중국산 철강재 가격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요 업종의 경기 침체 심화, 세계 경기 둔화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매출 부진 전망
		내수	-5.6	산업전반의 경기침체로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업부진에 따른 설비 조정, 자금난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등으로 매출 악화 전망
		수출	-5.2	중국산 철강재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공급 과잉 지속,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전 자 · 전 기		계	3.7	품질경쟁력 우위를 갖춘 고효율, 고부가가치 전자·전기제품군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 전망
		내수	3.2	조선업계 수주절벽에 따른 선박용전자·전기제품군의 매출 부진 예상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 및 납품처 다변화를 통한 신규 수주 확보 기대로 매출 증가 전망
		수출	4.3	글로벌 대형업체를 통한 안정적 납품처 확보로 IT부품, 고효율 배선 기구와 PCB, 하네스 등 전자부품군의 납품 개선세로 수출 증가 전망
자 동 차 부 품		계	0.1	각종 신차출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 및 국내외 완성차간의 경쟁 심화, 구매지원정책 종료 등으로 지역 부품업체의 매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내수	-0.1	신차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수진작 활성화정책 종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한 완성차 판매둔화로 보합 전망
		수출	0.4	전반적인 수요 부진세 지속 전망되는 가운데,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비중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기회로 수출 보합 전망
조 선 기 자 재		계	-13.4	올해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 현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업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 세계 선박발주량은 회복세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 하락 전망
		내수	-13.6	기자재 업체의 수주잔량이 상당 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수주 부진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 및 자금사정 악화 지속에 따른 각종 투자 위축 전망
		수출	-12.8	전세계 발주부진에 따른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환경 악화로 실적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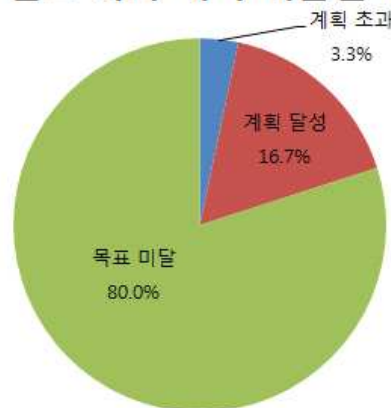
3. 기타 경영 관련 사항

가. 2016년 계획대비 매출실적

□ 응답기업의 80%가 2016년 연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응답 209개체의 2016년 계획대비 매출실적은 「목표 미달」 응답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 달성」 16.7%, 「계획 초과」 3.3% 순으로 나타남
-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가 및 전방산업의 침체 심화로 지역 제조업체들은 연초 계획보다 밑도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연초 계획 대비 매출실적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연초 계획 대비 「목표 미달」 응답이 94.3%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 초과」 응답은 한 곳도 없어, 조선 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를 드러냄

【 업종별 연초계획 대비 매출실적 】

(단위 : %)

구분	계획 초과	계획 달성	목표 미달
섬유.신발	2.9	17.1	80.0
화학	11.8	26.5	61.8
철강	0.0	14.3	85.7
전자.전기	2.9	8.6	88.6
자동차부품	2.9	28.6	68.6
조선기자재	0.0	5.7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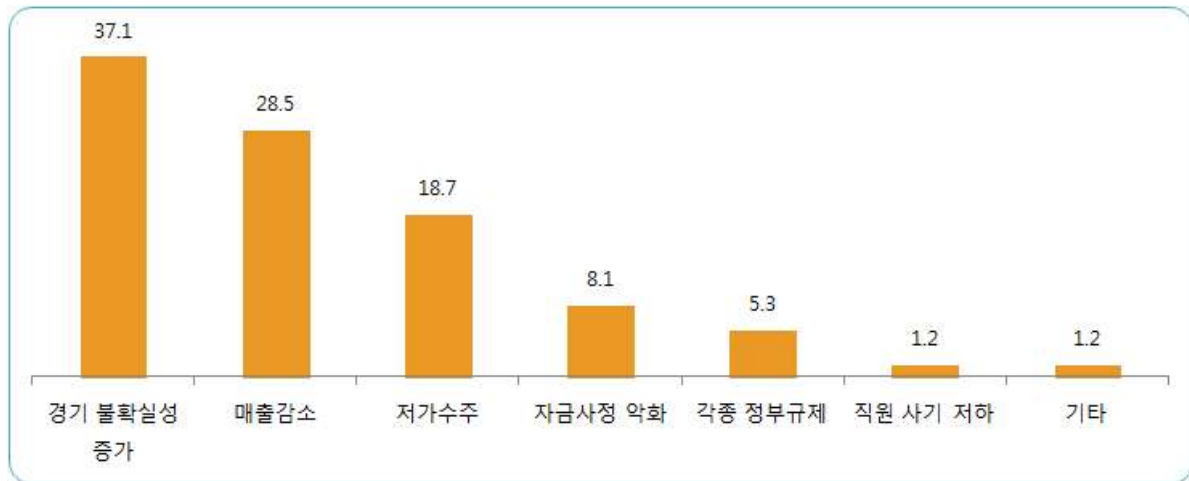
나.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 2016년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겪었음

-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가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중국 및 신흥국 경제 둔화, 개성공단 폐쇄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계부채 확대 및 소비심리 악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

(단위 : %)



- 업종별로는 화학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불확실성 증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화학은 「매출 감소」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업종별 경영애로사항 】

(단위 : %)

구 분	경기 불확실성 증가	매출감소	저가수주	자금사정 악화	각종 정부규제	직원 사기 저하	기타
섬유.신발	42.9	32.9	8.6	7.1	7.1	1.4	0.0
화학	26.5	45.6	22.1	5.9	0.0	0.0	0.0
철강	40.0	24.3	17.1	11.4	1.4	0.0	5.7
전자.전기	41.4	14.3	17.1	15.7	10.0	1.4	0.0
자동차부품	35.7	20.0	25.7	2.9	12.9	2.9	0.0
조선기자재	35.7	34.3	21.4	5.7	0.0	1.4	1.4

다. 고용 동향 및 전망

□ 2016년 말 고용동향은 2015년 말 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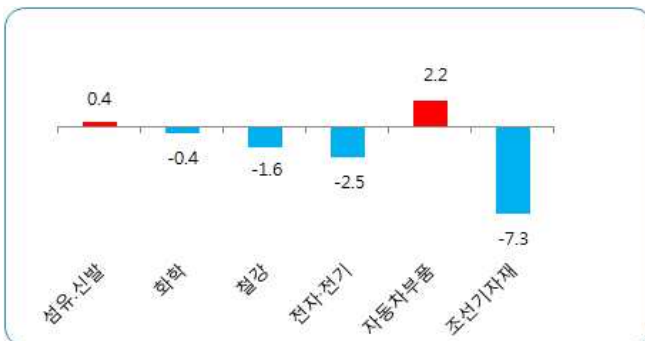
- 조사 응답 209개체의 2016년 말 현재 총 고용인원은 28,604명으로 2015년 말 28,957명에 대비 1.2% 감소
- 업종별로는 매출 하락이 가장 컸던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고용인원이 7.3% 감소하여, 업황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냄

□ 2017년 고용은 2016년 말 대비 0.4% 감소 전망

- 2017년 고용인원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와 철강 업종에서 고용 감소율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6년 고용동향 】

(단위 : %)



【 2017년 고용전망 】

(단위 : %)



구분	2015년12월말	2016년12월말	2017년 전망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률	2016년 대비 2017년 증감률
선유·선발	4,241	4,256	4,260	0.4	0.1
화학	5,631	5,607	5,600	-0.4	-0.1
철강	6,024	5,925	5,824	-1.6	-1.7
전자·전기	4,108	4,005	4,110	-2.5	2.6
자동차부품	5,369	5,487	5,442	2.2	-0.8
조선기자재	3,584	3,324	3,265	-7.3	-1.8
전체	28,957	28,604	28,501	-1.2	-0.4

라. 자금 사정 동향 및 전망

□ 2016년 자금 사정 동향은 대부분의 기업이 「보합」 혹은 「악화」 수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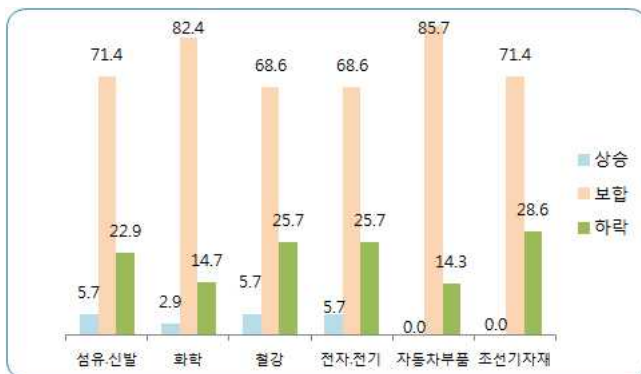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2016년 자금사정 동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4.6%가 「보합」, 「악화」 22.0%, 「호전」 3.3%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자금사정 「악화」 응답 비중이 28.6%로, 전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17년 자금사정 전망은 「보합」 64.1%, 「하락」 32.1%, 「악화」 3.8%

- 2017년 자금사정 전망도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64.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악화」 응답 업체비중이 32.1%로 2016년 대비 약 10%p 상승하며, 지역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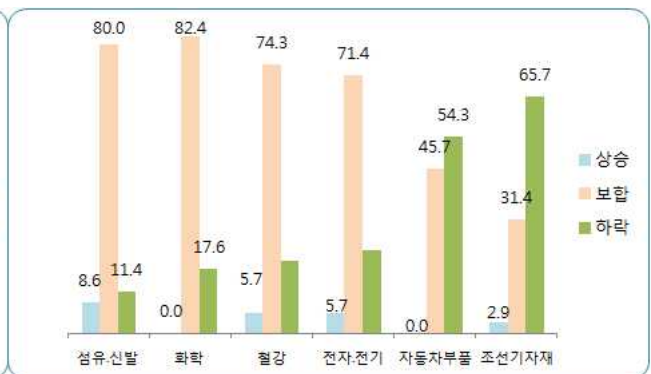
【 2016년 자금사정 동향 】

(단위: %)



【 2017년 자금사정 전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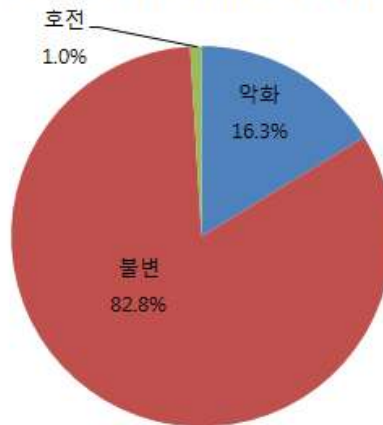


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 전망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불변」 응답

-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로 「불변」 응답이 82.8%, 「악화」 16.3%, 「호전」 1.0%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



-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에서 「악화」 응답이 28.6%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 이는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 업종별 무역환경 변화 전망 】

(단위 : %)

구분	악화	불변	호전
섬유·신발	8.6	91.4	0.0
화학	14.7	85.3	0.0
철강	28.6	68.6	2.9
전자·전기	11.4	88.6	0.0
자동차부품	17.1	82.9	0.0
조선기자재	17.1	80.0	2.9

Ⅲ. 주요 업종 동향 및 전망

1. 섬유 · 신발

가. 2016년 매출 동향

섬유업종은 내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

신발업종은 원부자재 수출 부진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

□ 섬유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7,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

- 대내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지속, 각종 프로모션에서의 지역 업체 실적 부진과 연말 특수 위축,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섬유 소비 감소와 중국 내 대규모 생산설비 확대 등의 악화요인으로 인해 매출은 전년 대비 5.2% 감소
-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해외 생산 의류의 역수입 확대, 해외 SPA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 해외 직구 및 병행 수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7.7% 감소
- 수출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로의 섬유수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섬유소재 부문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6% 감소

□ 신발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1조 6,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

- 연 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공장 철수 및 생산 중단 사태, 신발 원부자재 납품 규모 감소, 지역 업체 기능성 신발 등의 브랜드 마케팅 부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내수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조업 차질 및 소비 위축과 더불어 지역 내 생산품의 인지도 미흡, 신발 완제품 및 부분품 수요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
- 수출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OEM 주문은 견고해 신발 완제품의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신발 원부자재 수출이 다소 부진해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

【 부산 섬유 · 신발업종 2016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증감률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섬 유	7,565	4,472	3,093	7,169	4,126	3,043	-5.2	-7.7	-1.6
신 발	17,215	5,679	11,536	16,868	5,601	11,267	-2.0	-1.4	-2.3

주 : (주)화승, (주)창신INC 등 35개체 실적

□ 섬유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전년 대비 각각 6.8%, 4.2% 감소

- 중견기업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의복 및 스포츠 의류 부문의 소비 감소와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마케팅 확대에 의해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중소기업 역시 의류 및 산업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와 섬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납품단가 하락, 중국 현지조달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신발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전년 대비 각각 0.7%, 5.8% 감소

- 중견기업은 해외 브랜드 위탁생산 비중이 높은 대형 신발업체들로 구성,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의 OEM 및 ODM 주문량이 호조를 보였으나, 신발 부자재 수출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중소기업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해외 스포츠 브랜드, 대형 아웃도어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와 지역 스포츠 브랜드 기업들의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매출이 비교적 크게 감소

【 부산 섬유 · 신발업종 2016년 기업 규모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섬 유	중견기업	2,950	2,383	567	2,750	2,185	565	-6.8	-8.3	-0.4
	중소기업	4,615	2,089	2,526	4,419	1,941	2,478	-4.2	-7.1	-1.9
	계	7,565	4,472	3,093	7,169	4,126	3,043	-5.2	-7.7	-1.6
신 발	중견기업	12,686	2,250	10,436	12,600	2,500	10,100	-0.7	11.1	-3.2
	중소기업	4,529	3,429	1,100	4,268	3,101	1,167	-5.8	-9.6	6.1
	계	17,215	5,679	11,536	16,868	5,601	11,267	-2.0	-1.4	-2.3

주 : (주)화승, (주)창신INC 등 35개체 실적

나. 2017년 매출 전망

섬유업종은 내수 회복으로 2016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신발업종은 2016년 대비 보합 전망

□ 섬유업종 2017년 매출액은 2016년 대비 0.7% 소폭 증가 전망

- 섬유 소재 분야의 수출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의류 완제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확대 노력에 기인한 판매 확대 및 국내 섬유 소재 납품 증가로 2017년 매출은 전년 대비 0.7% 소폭 증가 전망
- 내수는 지역 주요 의류 판매업체들의 판촉 확대 전략과 섬유 소재 분야의 납품확대, 기능성 섬유 소재 개발 노력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 전망
- 수출은 중국의 섬유소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현지 조달비중 확대, 동남아 시장에서의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에 따른 수출 난항이 예상돼 소폭 감소 전망

□ 신발업종은 2017년 매출액은 2016년 대비 보합 전망

-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OEM 및 ODM 주문 지속, 지역 신발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과 신제품 출시, 마케팅 확대 전략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전반의 경기 침체로 소비 회복이 불투명하여 매출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내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드라이빙 슈즈, 안전화 등 특수화를 제조하는 지역 중소 제화업체들의 연구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에 따라 신발 부장품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며 중국산 저가 신발 원부자재와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감소가 다소 우려되나, 해외 스포츠 브랜드의 ODM 물량 유지에 따라 보합세 전망

【 부산 섬유 · 신발업종 2016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섬 유	7,169	4,126	3,043	7,219	4,182	3,037	0.7	1.4	-0.2
신 발	16,868	5,601	11,267	16,876	5,616	11,260	0.0	0.3	-0.1

주 : (주)화승, (주)창신INC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 섬유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은 2016년 대비 중견기업은 보합, 중소기업은 1.1% 증가 전망

- 중견기업에서는 남성정장 등 주력 분야의 매출이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역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매출은 보합세 전망
- 중소기업은 어망 및 산업용섬유 분야에서는 매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었으나, 스포츠 의류 분야에서 판촉증대를 비롯한 국내 마케팅 확대로 내수가 개선돼 매출이 소폭 증가 전망

□ 신발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은 2016년 대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보합세 전망

- 중견기업은 아디다스, 나이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ODM 주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유지로 전년과 보합 전망
- 중소기업은 중국산 저가 신발 원부자재의 동남아 시장 유입 확대로 관련 분야에서의 수출이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나 안전화 등 기능성 신발의 홍보 강화와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내수가 다소 회복되어 전체적으로 전년과 보합 전망

【 부산 섬유 · 신발업종 2017년 기업 규모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B)			2017년 전망(A)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섬 유	중견기업	2,750	2,185	565	2,750	2,185	565	0.0	0.0	0.0
	중소기업	4,419	1,941	2,478	4,469	1,997	2,472	1.1	2.9	-0.2
	계	7,169	4,126	3,043	7,219	4,182	3,037	0.7	1.4	-0.2
신 발	중견기업	12,600	2,500	10,100	12,600	2,500	10,100	0.0	0.0	0.0
	중소기업	4,268	3,101	1,167	4,276	3,116	1,160	0.2	0.5	-0.6
	계	16,868	5,601	11,267	16,876	5,616	11,260	0.0	0.3	-0.1

주 : (주)화승, (주)창신INC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2. 화학

가. 2016년 매출 동향

화학업종은 수요산업 업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화학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3조 1,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 등 수요산업의 업황부진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화학제품 소비 감소, 신흥국들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저유가의 지속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납품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내수는 조선, 해양플랜트 등 수요산업의 수주절감에 따른 경기침체로 선박용 도료, 자동차 부품, 산업용 고무제품, 윤활유 등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부진과 저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납품단가 하락, 중국산 도료 등 저가제품의 국내수입 증가로 매출이 전년 대비 2.1% 감소
- 수출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신흥국의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정밀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5.2% 감소

【 부산 화학업종 매출 동향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화 학	매 출 액	32,406	31,269	-3.5
	내 수	17,297	16,942	-2.1
	수 출	15,109	14,327	-5.2

주 : (주)아이피케이 등 34개체 실적

□ 화학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은 전년 대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4.8%, 0.1% 감소

- 중견기업은 윤활유 등 석유화학 분야와 도료 분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판로 다각화와 품질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수주단절로 인해 업황이 부진한 수요산업의 영향으로 내수가 감소하였고 중국산 저가 화학제품과의 수출 경쟁 심화로 매출이 전년 대비 4.8% 감소
- 중소기업은 신제품 개발 노력과 제품 판로 다각화를 바탕으로 내수는 개선되었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은 소폭 감소해 매출이 전년 대비 보합세

【 부산 화학업종 2016년 기업규모별 매출 동향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화학	중견기업	23,414	12,944	10,470	22,285	12,417	9,868	-4.8	-4.1	-5.7
	중소기업	8,992	4,353	4,639	8,984	4,525	4,459	-0.1	4.0	-3.9
	계	32,406	17,297	15,109	31,269	16,942	14,327	-3.5	-2.1	-5.2

주 : (주)아이피케이 등 34개체 실적

나. 2017년 매출 전망

화학업종 2016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

□ 화학업종의 2017년 예상 매출액은 3조 1,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소폭 감소 전망

- 내수와 수출 모두 각각 0.7% 감소로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단가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해양플랜트를 비롯한 주요 수요산업에서 수주급감으로 신규주문 감소,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이 예상돼 선박도료 및 안료, 고무제품 등에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7년 매출은 2016년 대비 0.7% 소폭 감소 전망
- 내수는 유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 등 수요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가 예상되어 매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수출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산유국들의 화학 산업 투자확대와 신흥국들의 설비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미국과 EU 등 주요 경쟁 국가들의 업계 사업재편 등의 요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부산 화학업종 2016년 매출 동향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화학	매출액	31,269	31,036	-0.7
	내수	16,942	16,816	-0.7
	수출	14,327	14,220	-0.7

주 : (주)아이피케이 등 34개체 실적 및 전망

□ 화학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은 2016년 대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0.6%, 1.1% 감소 전망

- 중견기업의 경우 조선 및 해양플랜트 수주 단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선박도료 및 관련 화학제품 분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화학분야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분야의 강화로 도료,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돼 매출이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은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변동, 신흥국의 더딘 경제회복세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데다 중국의 중속성장 고착화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 당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자급률 확대 정책의 영향 등으로 매출이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부산 화학업종 2017년 기업규모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화학	중견기업	22,285	12,417	9,868	22,155	12,364	9,791	-0.6	-0.4	-0.8
	중소기업	8,984	4,525	4,459	8,881	4,452	4,429	-1.1	-1.6	-0.7
	계	31,269	16,942	14,327	31,036	16,816	14,220	-0.7	-0.7	-0.7

주 : (주)아이피케이 등 34개체 실적 및 전망

3. 철강

가. 2016년 매출 동향

2016년 철강업종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

□ 철강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4조 7,06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

- 내수와 수출이 각각 7.3%, 6.2% 감소
- 국내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시장 잠식 심화,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 확대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매출 하락
- 내수 부문은 조선, 기계 등 연관 산업의 경기 침체로 수요 부진 및 단가 인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엔저에 힘입은 일본산 철강재 국내 시장 침투 확대 등으로 경쟁이 과열되며 실적 악화
 - 이에, 공장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업체 별 설비조정 우려 증가
 - 또한, 금융기관에서 철강을 포함한 경기 취약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만기 연장 거절 및 조기 상환 압박이 심화되며 자금난을 겪고 있음
- 수출 부문은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위축 및 공급과잉 지속, 주요국의 각종 수입 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실적 부진
 - 특히, 미국·EU를 비롯한 주요 수입국에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철강재의 자국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

【 부산 철강업종 2016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 출 액	50,661	47,069	-7.1
내 수	40,146	37,205	-7.3
수 출	10,515	9,864	-6.2

* 주 : 대한제강(주) 등 35개체 실적

□ 기업규모별로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중견기업’은 6.9% 감소,
‘중소기업’은 7.7% 감소

- 중견기업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규모를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하며 매출 실적은 악화
- 중소기업은 중국산 철강재 내수 시장 잠식 심화 및 가격 경쟁력 열위 지속,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부진이 더욱 크게 나타남.

【 부산 철강업종 2016년 기업 규모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중견기업	41,001	32,009	8,992	38,154	29,731	8,423	-6.9	-7.1	-6.3
중소기업	9,660	8,137	1,523	8,915	7,474	1,441	-7.7	-8.1	-5.4
계	50,661	40,146	10,515	47,069	37,205	9,864	-7.1	-7.3	-6.2

* 주 : 대한제강(주) 등 35개체 실적

나. 2017년 매출 전망

철강업종 매출은 2016년 대비 감소 전망

□ 철강업종은 2017년 매출액은 4조 4,490억원으로 2016년 대비 5.5% 감소 전망

- 내수와 수출 모두 각각 5.6%, 5.2% 감소 전망
- 2017년에는 중국산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저가 경쟁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업종의 경기 침체 심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 지속,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매출 부진 전망
- 내수 부문은 조선 산업 부진 심화, 주택건설 경기 둔화 등 산업전반의 경기침체로 철강재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업부진에 따른 설비 조정, 자금난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등으로 매출 악화 전망
- 수출 부문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공급 과잉 지속,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인도 등 주요 수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트럼프 정부 출범 등에 따라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망

【 부산 철강업종 2017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	2017년 전망	증감률(B-A)/A
매 출 액	47,069	44,490	-5.5
내 수	37,205	35,136	-5.6
수 출	9,864	9,354	-5.2

* 주 : 대한제강(주)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 기업규모별로 매출을 보면 2017년 대비 ‘중견기업’은 5.4% 감소, ‘중소기업’은 5.8% 감소 전망

- 중견기업은 품질향상 위한 설비투자 등을 꾸준히 진행,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수요 부진, 각국의 수입규제 정책에 따른 수출 위축 등으로 매출 하락 전망.
- 중소기업 역시 중국산 철강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강재와의 과당 경쟁 지속, 주요 산업 침체, 해외 시장 개척 한계 등으로 매출 감소 전망.

【 부산 철강업종 2017년 기업 규모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중견기업	38,154	29,731	8,423	36,088	28,105	7,983	-5.4	-5.5	-5.2
중소기업	8,915	7,474	1,441	8,402	7,031	1,371	-5.8	-5.9	-4.9
계	47,069	37,205	9,864	44,490	35,136	9,354	-5.5	-5.6	-5.2

* 주 : 대한제강(주)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4. 전자·전기

가. 2016년 매출 동향

전자·전기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 소폭 감소

□ 전자·전기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1조 2,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 전년 대비 내수는 7.7% 감소, 수출은 1.6% 증가
- IT전자 부품, 차량용 모터, 정밀계측기기, 고효율 에너지 전력기자재 등 일부 고부가가치제품군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였지만,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일부 기업은 사업장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
- 내수는 조선경기 악화로 인해 선박용 배전반, 변압기, 통신장비 등의 전자·전기제품은 수주 감소, 납품단가 하락으로 부진하였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가전제품 교체수요 감소로 회로기판 등의 전자부품군도 부진세가 지속되어 실적이 감소하였음.
반면, 아파트 분양 호조세에 따른 주택건설용 스마트배선기구 등의 고효율 에너지 전력기자재의 납품실적은 증가하였음.
- 수출은 신규 고객사 유치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견고한 협력체계 지속 등으로 IT전자 부품과 브랜드 경쟁력 및 유통채널 다각화로 정밀계측기기 제품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어 소폭 증가하였음.

【 부산 전자·전기업종 2016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 출 액	12,737	12,236	-3.9
내 수	7,597	7,014	-7.7
수 출	5,140	5,222	1.6

* 주 : 리노공업(주) 등 35개체 실적

□ 기업규모별로 매출을 보면, 중견기업은 45.4% 감소, 중소기업은 7.0% 증가

- 중견기업은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력사업부문의 영업권 등을 양도한 일부 기업의 사업 축소로 큰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산업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 감소 및 단가 인하로 매출증가세가 미미하였지만, 일부 고부가가치 전자·전기제품군의 실적호조세가 매출 신장을 견인함.

【 부산 전자·전기업종 2016년 기업 규모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중견기업	2,655	1,125	1,530	1,450	150	1,300	-45.4	-86.7	-15.0
중소기업	10,082	6,472	3,610	10,786	6,864	3,922	7.0	6.1	8.6
계	12,737	7,597	5,140	12,236	7,014	5,222	-3.9	-7.7	1.6

* 주 : 리노공업(주) 등 35개체 실적

나. 2017년 매출 전망

전자·전기업종은 2016년 대비 매출 증가 전망

□ 전자·전기업종의 2017년 매출액은 1조 2,683억원으로 2016년 대비 3.7% 증가 전망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 둔화로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쟁우위를 갖춘 고효율, 고부가가치 전자·전기제품군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내수는 조선업계 수주절벽에 따른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영향으로 선박용 전자·전기제품군의 납품단가 인하, 물량 급감으로 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다각화 및 납품처 다변화를 통한 신규 수주 확보 기대로 매출 신장 전망 또한, 차량용 모터, IT 및 디스플레이 전자 소재 등의 고품질 제품군의 꾸준한 수요증가로 긍정적인 실적 예상
- 수출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비우호적 무역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대형업체를 통한 안정적 납품처 확보로 IT부품, 고효율 배선기구와 PCB, 하네스 등 전자부품군의 납품 개선세가 전반적인 수출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

【 부산 전자·전기업종 2017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 출 액	12,236	12,683	3.7
내 수	7,014	7,237	3.2
수 출	5,222	5,446	4.3

* 주 : 리노공업(주)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 기업규모별로 매출을 보면, 중견기업은 1.7% 증가, 중소기업은 3.9% 증가

- 중견기업은 내수경기 회복 부진에 따른 가전제품 판매 증가 둔화 예상 및 사업축소 기업의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 전망
- 중소기업은 고정 해외 수요처로 부터의 수주 증가, 일부 전기 공급 및 제어 장치 제품군의 육상플랜트 부문으로의 납품처 다변화 등으로 매출 개선 전망

【 부산 전자·전기업종 2017년 기업 규모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중견기업	1,450	150	1,300	1,475	175	1,300	1.7	16.7	0.0
중소기업	10,786	6,864	3,922	11,208	7,062	4,146	3.9	2.9	5.7
계	12,236	7,014	5,222	12,683	7,237	5,446	3.7	3.2	4.3

* 주 : 리노공업(주)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5. 자동차부품

가. 2016년 매출 동향

자동차부품업종 매출은 전년 대비 보합

□ 자동차부품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3,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 전년 대비 내수는 3.4% 증가, 수출은 1.3% 감소하였음
- 완성차업체의 경쟁적 신차 출시, 내수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혜택(2016년 상반기까지) 등으로 인한 후방효과로 부품업체의 매출 증가 요인도 있었지만, 상반기 이후 일부 완성차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납기지연, 공장가동률 저하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침.
- 내수는 완성차업체의 파업 및 태풍으로 인한 조업 차질, 기존 주력모델 노후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등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SM6, QM6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신차 출시효과, 위탁생산차량 증가 등에 따른 부급 공급 증가로 매출이 소폭 개선되었음.
 - 매년 반복되는 완성차업체의 노조파업은 지역 부품업체의 공장가동률 저하, 재고 증가, 유휴 인력 발생 등을 야기해 경영활동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대기업의 상생발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수출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보합세에 따른 러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 경기침체 영향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완성차업체 주요 해외공장에서의 부품 현지조달 증대, 글로벌 완성차업체로부터의 수주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부산 자동차부품업종 2016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 출 액	23,826	24,143	1.3
내 수	13,186	13,640	3.4
수 출	10,640	10,503	-1.3

주 : 디알엑시온(주) 등 35개체 실적

□ 자동차부품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중견기업은 0.5% 증가, 중소기업은 1.9% 증가

- 중견기업은 완성차업체와 동반진출한 해외공장의 생산활동 안정화, 글로벌 완성차업체로의 고품질·친환경 부품군 공급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 및 파업 영향으로 매출 증가세 둔화
- 중소기업도 완성차 국내판매 보합세, 파업 영향으로 인해 부품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경쟁심화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업체로의 납품도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폭의 매출 증가에 그침.

【 부산 자동차부품업종 2016년 기업 규모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중견기업	10,000	3,000	7,000	10,050	3,050	7,000	0.5	1.7	0.0
중소기업	13,826	10,186	3,640	14,093	10,590	3,503	1.9	4.0	-3.8
계	23,826	13,186	10,640	24,143	13,640	3,503	1.3	3.4	-1.3

주 : 디알엑시온(주) 등 35개체 실적

나. 2017년 매출 전망

자동차부품업종 매출은 2016년 대비 보합 전망

□ 자동차부품업종의 2017년 매출액은 2조 4,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 전망

- 2016년 대비 내수는 0.1% 감소, 수출은 0.4% 증가 전망
-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미국, 유럽, 신흥국 등지에서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 및 국내외 완성차간의 경쟁 심화,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구매지원정책 종료로 완성차 판매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각종 신차출시에도 지역 부품업체의 매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내수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꾸준한 신차 출시 및 구매 프로모션 실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수진작 활성화정책 종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가 완성차 판매둔화로 이어져 지역 부품업체의 실적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유가반등에 따른 신흥국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비중확대가 부품수출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부품현지 조달 다변화로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부업체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친환경·전기차 관련 고부가가치 부품의 납품 비중 확대 및 신규 공급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아직 미성숙단계로 부품업체의 판로개척 및 이익실현에는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음.
 -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가능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 철폐 우려가 멕시코 해외 현지 법인 및 지역 부품업체의 미국 수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부산 자동차부품업종 2017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 출 액	24,143	24,173	0.1
내 수	13,640	13,625	-0.1
수 출	10,503	10,548	0.4

주 : 디알엑시온(주) 등 35개체 실적

□ 자동차부품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을 보면, 2016년 대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견기업은 국내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BMW, GM 등 글로벌 유명 완성차업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및 납품처 다변화를 실현하는 등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규 진출 해외공장의 원활한 조업활동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회복 부진으로 실적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은 국내외 자동차수요 정체 전망에 따른 완성차 판매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만성적인 생산현장 인력수급 애로가 경영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

【 부산 자동차부품업종 2017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매출액	내수	수출
중견기업	10,050	3,050	7,000	10,060	3,020	7,040	0.1	-1.0	0.6
중소기업	14,093	10,590	3,503	14,113	10,605	3,508	0.1	0.1	0.1
계	24,143	13,640	10,503	24,173	13,625	10,548	0.1	-0.1	0.4

주 : 디알엑시온(주) 등 35개체 실적

6. 조선기자재

가. 2016년 매출 동향

조선기자재업종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

□ 조선기자재업종의 2016년 매출액은 1조 1,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

- 글로벌 경기 둔화, 저유가 지속 등으로 전세계 선박 발주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영 위기로 자국 발주가 위축되며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 수주잔량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
 - 올해(2016.1~11) 전 세계 선박발주량이 1,048만CGT로 전년 동기(3,720만CGT) 대비 71.8% 감소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국내 수주량은 163만CGT로 전년 동기(1,030만CGT) 대비 84.1% 감소
 - 11월 말 기준 수주잔량은 2,046만CGT를 보유, 2003년 6월 말 1,897만CGT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주요국의 수주량 및 수주잔량(2016.1~11월)>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수주량	163만CGT	375만CGT	112만CGT
수주잔량	2,046만CGT	3,138만CGT	2,006만CGT

자료: 클락슨

-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조선기자재 업계 역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 내수 부문에서는, 조선업 수주 절벽에 따라 납품물량 및 수주잔량이 점차 감소하며 생산활동 위축
 - 납품단가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락
 - 고용부문은 생산활동 위축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무, 잔업)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력 과잉 축소 움직임 심화
 - 자금상황 역시, 매출 및 수익성 감소, 시중은행의 조선산업에 대한 위험 노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 부진으로 악화
 - 또한, STX조선해양(주) 법정관리에 따른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 수출 부문에서는, 주 수출국인 중국과 일본 모두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부진
 - 대 중국 수출은 가격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자재 현지화율이 크게 상향되고 있어 국내 업체 수출 부진
 - 대 일본 수출은 일본 조선소의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납품 부진, 현지의 품질 검사 심화에 따른 각종 클레임 및 A/S 요청 증가로 적자 수주 만연

【 부산 조선기자재업종 2016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 출 액	13,054	11,916	-8.7
내 수	8,515	7,765	-8.8
수 출	4,539	4,151	-8.5

주 : (주)비아이피 등 35개체 실적

□ 조선기자재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을 보면,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7.7% 감소, ‘중소기업’은 8.8% 감소하였음.

- ‘중견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지속에 따른 해양 프로젝트 중단 및 발주 부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7.7% 감소
- ‘중소기업’은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에 따른 기자재 납품 감소, 원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 심화, 국가 간 과당경쟁 및 가격경쟁력 열위,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생산능력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이 8.8% 감소

【 부산 조선기자재업종 2016년 기업 규모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A)			2016년 실적(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중견기업	1,300	1,150	150	1,200	1,060	140	-7.7	-7.8	-6.7
중소기업	11,754	7,365	4,389	10,716	6,705	4,011	-8.8	-9.0	-8.6
계	13,054	8,515	4,539	11,916	7,765	4,151	-8.7	-8.8	-8.5

주 : (주)비아이피 등 35개체 실적

나. 2017년 매출 전망

조선기자재업종 매출은 2016년 대비 감소 전망

□ 조선기자재업종의 2017년 매출액은 1조 325억원으로, 2016년 대비 13.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올해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 현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업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회복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될 전망
 -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규 수주 부진 지속 전망
- 조선사의 수주 절벽 현상에 따라 조선기자재 업계 역시 내수와 수출 각각 13.6%, 12.8% 감소전망
- 내수 부문에서는, 기자재 업체의 수주잔량이 상당 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수주 부진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조선업 장기 침체에 따라 조선·해양 부문의 사업 비중 축소 및 사업 구조 개편 전망
 - 기자재 업계에서는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을 표방, 비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 위축 불가피
 - 또한, 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지속에 따라 각종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 환경 악화로 감소 전망
 - 대 중국 수출은 과당경쟁 및 가격경쟁력 열위 지속, 중국의 자체부품 조달 증가로 수출 부진 전망
 - 대 일본 수출 역시 올해 일본 조선소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납품 부진, 적자 수출 지속 전망
 - 이에따라, 중국, 일본 외 국가에 대한 수출 다각화가 필요하지만, 타 국가의 경우 건조량이 크게 못 미치고, 설계도면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기자재 납품이 쉽지 않으며, 거래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하여 거래가 쉽지 않음

【 부산 조선기자재업종 2017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 출 액	11,916	10,325	-13.4
내 수	7,765	6,706	-13.6
수 출	4,151	3,619	-12.8

주 : (주)비아이피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 조선기자재업종의 기업 규모별 매출을 보면, 2016년 대비 ‘중견기업’은 8.3%, ‘중소 기업’은 13.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견기업’은 품질경쟁력 상승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선박 발주 부진에 따른 납품 감소, 신규 시장 개척 한계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8.3% 감소 전망
- ‘중소기업’은 수주잔량 소진 및 신규 수주 부진에 따른 기자재 납품 감소,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자금난 심화에 따른 투자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13.9% 감소 전망

【 부산 조선기자재업종 2017년 기업 규모별 매출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실적(A)			2017년 전망(B)			증감률(B-A)/A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매출	내수	수출
중견기업	1,200	1,060	140	1,100	970	130	-8.3	-8.5	-7.1
중소기업	10,716	6,705	4,011	9,225	5,736	3,489	-13.9	-14.5	-13.0
계	11,916	7,765	4,151	10,325	6,706	3,619	-13.4	-13.6	-12.8

주 : (주)비아이피 등 35개체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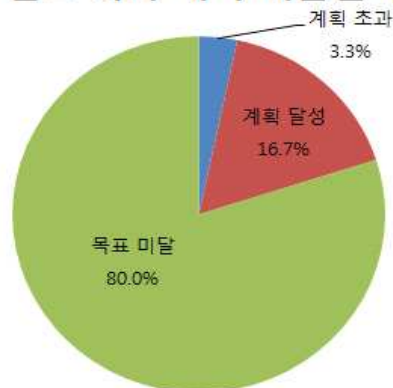
VI. 기타 경영 관련 사항

가. 2016년 계획대비 매출실적

□ 응답기업의 80%가 2016년 연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응답 209개체의 2016년 계획대비 매출실적은 「목표 미달」 응답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 달성」 16.7%, 「계획 초과」 3.3% 순으로 나타남
-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가 및 전방산업의 침체 심화로 지역 제조업체들은 연초 계획보다 밑도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연초 계획 대비 매출실적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연초 계획 대비 「목표 미달」 응답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 초과」 응답은 한 곳도 없어, 조선 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를 드러냄

【 업종별 연초계획 대비 매출실적 】

(단위 : %)

구분	계획 초과	계획 달성	목표 미달
섬유.신발	2.9	17.1	80.0
화학	11.8	26.5	61.8
철강	0.0	14.3	85.7
전자.전기	2.9	8.6	88.6
자동차부품	2.9	28.6	68.6
조선기자재	0.0	5.7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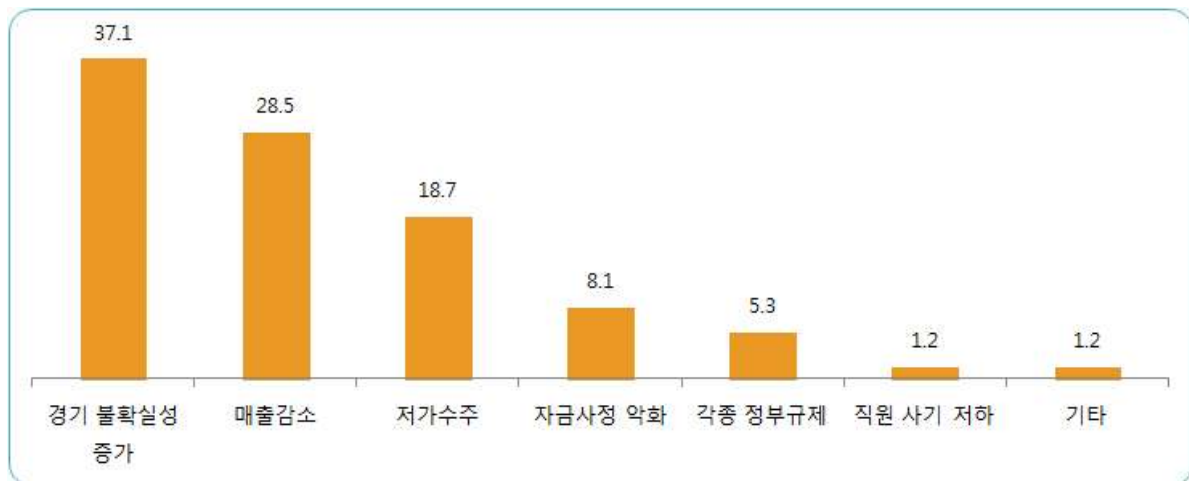
나.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 2016년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겪었음

-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가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중국 및 신흥국 경제 둔화, 개성공단 폐쇄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계부채 확대 및 소비심리 악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

(단위 : %)



- 업종별로는 화학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불확실성 증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화학은 「매출 감소」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업종별 경영애로사항 】

(단위 : %)

구 분	경기 불확실성 증가	매출감소	저가수주	자금사정 악화	각종 정부규제	직원 사기 저하	기타
섬유·신발	42.9	32.9	8.6	7.1	7.1	1.4	0.0
화학	26.5	45.6	22.1	5.9	0.0	0.0	0.0
철강	40.0	24.3	17.1	11.4	1.4	0.0	5.7
전자·전기	41.4	14.3	17.1	15.7	10.0	1.4	0.0
자동차부품	35.7	20.0	25.7	2.9	12.9	2.9	0.0
조선기자재	35.7	34.3	21.4	5.7	0.0	1.4	1.4

다. 고용 동향 및 전망

□ 2016년 말 고용동향은 2015년 말 대비 1.2% 감소

- 조사 응답 209개체의 2016년 말 현재 총 고용인원은 28,604명으로 2015년 말 28,957명에 대비 1.2% 감소
- 업종별로는 매출 하락이 가장 컸던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고용인원이 7.3% 감소하여, 업황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냄

□ 2017년 고용은 2016년 말 대비 0.4% 감소 전망

- 2017년 고용인원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와 철강 업종에서 고용 감소율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6년 고용동향 】

(단위 : %)



【 2017년 고용전망 】

(단위 : %)



구분	2015년12월말	2016년12월말	2017년 전망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률	2016년 대비 2017년 증감률
선유·선발	4,241	4,256	4,260	0.4	0.1
화학	5,631	5,607	5,600	-0.4	-0.1
철강	6,024	5,925	5,824	-1.6	-1.7
전자·전기	4,108	4,005	4,110	-2.5	2.6
자동차부품	5,369	5,487	5,442	2.2	-0.8
조선기자재	3,584	3,324	3,265	-7.3	-1.8

라. 자금 사정 동향 및 전망

□ 2016년 자금 사정 동향은 대부분의 기업이 「보합」 혹은 「악화」 수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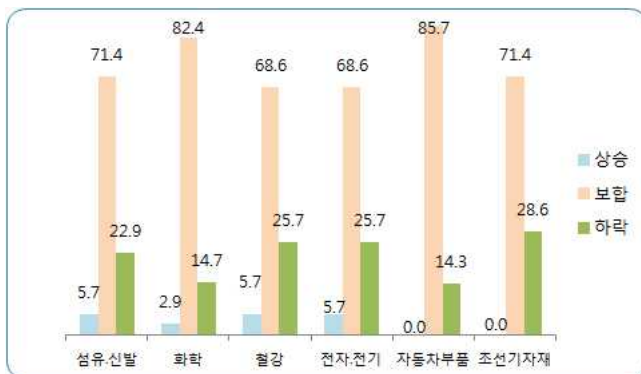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2016년 자금사정 동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4.6%가 「보합」, 「악화」 22.0%, 「호전」 3.3%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자금사정 「악화」 응답 비중이 28.6%로, 전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17년 자금사정 「보합」 64.1%, 「하락」 32.1%, 「악화」 3.8%.

- 2017년 자금사정 전망도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64.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악화」 응답 업체비중이 32.1%로 2016년 대비 약 10%p 상승하며, 지역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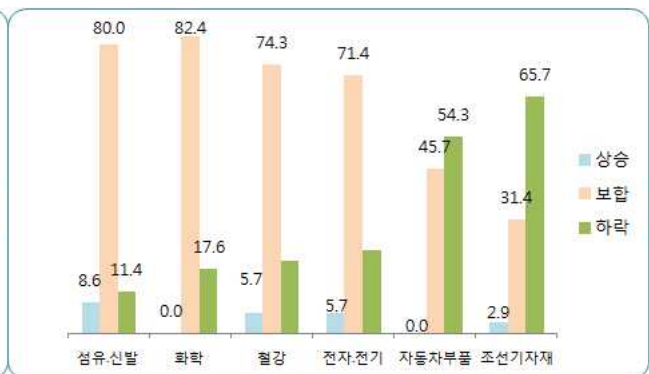
【 2016년 자금사정 동향 】

(단위: %)



【 2017년 자금사정 전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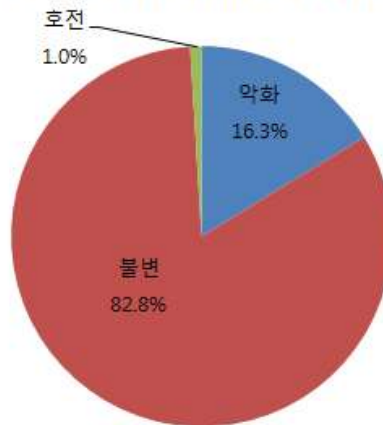


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 전망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불변」 응답

-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로 「불변」 응답이 82.8%, 「악화」 16.3%, 「호전」 1.0%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



-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에서 「악화」 응답이 28.6%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 이는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 업종별 무역환경 변화 전망 】

(단위 : %)

구분	악화	불변	호전
섬유.신발	8.6	91.4	0.0
화학	14.7	85.3	0.0
철강	28.6	68.6	2.9
전자.전기	11.4	88.6	0.0
자동차부품	17.1	82.9	0.0
조선기자재	17.1	80.0	2.9